

“北, 의료 ‘갈라파고스’... R&D 협력땀 통일비용 1/10로”

남북간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협력을 통해 통일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신희영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제30차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에서는 남북 보건의료협력이 통일 이후 공멸이 아닌 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남북한 통일에는 독일 통일 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은 15년간 대략 2000조원 가량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에 따르면 남북한의 소득 수준과 상대적 인구 비중은 독일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10여년 간 남북 교류협력력이 단절되면서, 남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격차는 더욱 증대됐다. 통일의학센터에 따르면 남한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북한(71.9세)보다 10.8세가 많다. 성인 사망률 역시 북한이 인구 1000명당 132명으로 남한의 2.2배에 달하고, 모성 사망비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구촌 보건복지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두고 투자하면 ‘10분의 1’로 퍼주기식 지원보다 협력 활용해야 兆단위 부가가치 창출로 상생 가능

각각 7.5배, 5.7배 높다.

신 소장은 “국회에안정정책처가 대략 추정한 남북 보건의료 격차에 따른 비용은 40조원에 달한다”며 “독일은 통일 15년 전부터 동서간 보건의료협정을 맺어 준비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단순히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서 보건

료 협력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의 의료 R&D 협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질병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신 소장은 결핵과 기생충, B형간염, 모자보건, 식품영양, 만성질환, 천연물신약 등 12가지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분야는 천연물신약 개발이다.

신 소장은 “북한에서는 대부분 의약품에서 천연물 연구가 35%를 차지할

만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의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천연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것”이라며 “북한과 함께 천연물 신약을 연구할 경우, 개발 기간을 5년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생충이나 결핵균과 같이 북한이 가진 질환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소장은 “북한 인구의 90%가 인체에 결핵균이 검출되는데 의학연구자 입장에서 정말 귀중한 천연자원”이라며 “기생충을 활용한 아토피 치료제나, 결

핵균을 활용한 결핵백신을 개발한다면 노벨상을 받는 것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북한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진료병원, 이동형자가 수액 제조기, 백신캐리어 등을 개발하면 북한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의 의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 소장은 “북한은 질환이 잘 보존돼 있는 의료의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귀중한 곳이다. 10년 기간을 두고 미리 투자하면 통일 땀때드는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라며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R&D 협력을 활용한 한 조단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경·석대성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단국대병원, 250병상 규모 암센터 착공

단국대학교는 단국대병원(병원장 조종태)이 11일 오전 암센터 착공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을 비롯, 구본영 천안시장, 이규희·윤일규 국회의원, 지역 인사가 참석한다.

단국대병원 암센터는 지하 3층, 지상 7층의 2만9869㎡, 250병상 규모로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암센터가 건립되면 단국대병원은 1000병상이 넘는 대형병원이 된다.

암센터에는 갑상선·유방암센터, 위·대장·복막암센터, 간·담도·췌장암센터, 폐암센터, 혈액암센터 등 암 종별 센터를 비롯해 건강증진센터, 내시경센터 등이 들어서 포괄적 암 치료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개원시 기존 분산 운영되던 암 치료 기능을 통합하고 인력과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여기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 선형가속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 또는 증설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진들이 모여 최상의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는 다학제 통합진료, 암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같은 심리적 증상을



단국대병원 암센터 투시도 /단국대학교

진단하고 치료하는 심리클리닉 등을 운영해 차별화된 암센터를 선보인다.

또 저층 진료부와 고층 병동을 연계해 암환자 검사와 수술, 입원치료 시 이동 동선을 배려했고, 4층에는 옥상정원을 조성해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대학병원과 연결돼 주차장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우성 의료원장은 “암센터는 단국대병원과 지역사회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향후 암종별 센터를 조직화해 암 진단부터 수술, 추적관리, 예방에 이르기까지 통합 관리해 환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간 암환자 관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전 세계에 ‘메디톡스’ 알린다... AMWC 참가

미용성형 분야 최고 글로벌 학회 히알루론산 필러 등 적극 홍보

메디톡스가 글로벌 유명 학회 참가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3~6일 모나코 몬테 카를로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미용 안티에이징 학회(AMWC2019)에 참석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독신 제제와 히알루론산 필러를 적극 홍보했다고 10일 밝혔다.

AMWC는 미용성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글로벌 학회 중 하나로 매년 봄 모나코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세계 120개국에서 300여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했으며 1만 명 이상의 미용성형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용과 항노화 관련 최신 지견과 기술을 선보였다.

올해로 8년 연속 AMWC에 참여한 메디톡스는 학회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의 우수성 알리기에



제17회 세계 미용 안티에이징 학회(AMWC2019)에 참가한 메디톡스 부스 전경

나섰다.

특히 행사장에 마련한 대규모의 부스에서는 메디톡스가 자체 개발한 3종의 보툴리눔 독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톡스)’ ‘이노톡스’ ‘코어톡스’와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홍보 활동을 진행했으며, 다수의 의료진과 업계 관계자가 방문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메디톡스 오용기 마케팅 이사는 “미

국과 중국 등 선진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해외 활동을 올해는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진출 국가 확대에도 적극 나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만성콩팥병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만성콩팥병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만성콩팥병 개요’를 주제로 한 이번 건강강좌는 ▲콩팥병이란 무엇인가?(이신아 신장내과 교수·사진) ▲만성콩팥병 환자 식사 개요(정겨운 임상영양사) ▲내가 만들면 그게 바로 저염식(최수빈

원) ▲맛마음 임상영양사)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한독 “일교차 큰 환절기, 홍삼먹고 면역력 UP”

한독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네이처셋’은 ‘봄이 왔나 봄, 면역력 증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일교차가 큰 봄철을 맞아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26일까지 네이처셋 전 제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컬처렐’ 제품을 7만원 이상 구매하면, 홍삼 건강기능식품인 ‘홍삼Q 애니타임’ 10포를 증정한다.

이벤트 경품인 ‘홍삼Q 애니타임’은

홍삼 농축액과 유기농 아가베 시럽, 커큐민(테라큐민)만을 넣어 만든 프리미엄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섭취기준 홍삼 사포닌을 8mg 이상 섭취할 수 있다.

한독 담당자는 “일교차가 매우 큰 봄 환절기에는 전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면서 면역력 증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부족한 영양을 꼼꼼히 챙기고,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번 이벤트는 한독 공식 온라인몰인 ‘한독몰(mall.handok.co.kr)’을 비롯해 주요 온라인 종합몰에서 진행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독몰에서 문의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